

새누리 지도부 '경선 룰' 결국 현행대로

선거인단 확대 등 중재안 사실상 거부 비박주자들 경선불참 고수 강력 반발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난 2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룰에 따라 경선을 치르기로 사실상 확정지었다. 비박(非朴·비박근혜) 주자들은 기존의 경선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황우여 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경선 룰에 대해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선 경선 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현행 경선 룰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다는 게 참석자

들의 전언이다.

특히 정몽준 전 대표·이재오 전 특임장관·김문수 경기도지사 비박 주자들을 경선에 참여시키기 위한 토론도 벌였으나 일치된 묘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선 룰 변경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겠다는 게 심재철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친이계인 심 최고위원은 이날 선거인단에 일반 국민 참여비율 확대 방안(2:3:3:2→1:2:5:2·대의원:책임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에 대해 주장했

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 또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룰대로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 최고위원은 "경선 룰에 대한 논의는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어서 혼란만 자초한다는 의견으로 룰 선거인단 확대 등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었다"면서 "(룰 개정과 관련해) 더 무언가를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선 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비박측 주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전 장관 측 대리인인 권택기 전 의원은 지난 2일 "도둑놈을 아반도주도 아니고, 간밤에 갑자기 룰을 결정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난했다.

하지만, 황 대표가 비박 주자들이 경선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와 비박 주자들 간의 물밑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들이 비박 주자들을 만나 설득, 호소에 총력을 기울여 보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들에게 명분을 줄 뚜렷한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 수를 현재의 당헌에 따라 19대 총선 유권자 수(4018만1623명)의 0.5%인 20만1320명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박지연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오래 걸릴 것"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광주 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신문사 국회 출입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문제와 관련, "여야가 자격 심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명 등이 이뤄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자격심사 과정에서 중복 문제 등을 꺼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질적인 사상 검증이며 매카시즘적 발상으로 현실 회피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결국, 경선 부정 문제를 놓고 자격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부분은 사법부가 다룰 역할이지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문제는 국회 개원을 위해 여야가 우선 걸쳐 놓은 형국"이라고 밝히, 추후 자격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앞서 치러지는 컷-오프에서의 1인 2표제 도입 문제와 관련, 이 대표는 "이번 컷-

오프는 한 사람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이지 집단 지도체제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와 같이 1인 1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컷-오프 시기와 관련, 이 대표는 "선관위가 경선 관리를 한 달 정도밖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컷-오프는 당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법관 인사청문회 '신경전'

구성시기·임명동의안 처리 기한 맞서

여야는 3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구성 시기와 임명동의안 처리기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청문특위 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개원이 늦은 데 대한 책임감조차도 잘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청문특위위원 명단을 의

부 발표까지 하고선 어제까지 내부사정이라며 최종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임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10일 이전 임명동의안 처리를 마칠 수 있도록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관 임기만료 일을 넘기더라도 "졸속 청문회"는 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여야 합의대로 5일까지 인사청문회 위원 구성을 마칠 경우, 일주일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한 엄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측 청문특위 위원 6명 중 5명을 선임했고, 4일 중 나머지 한 명의 인선도 마칠 계획이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12일 이후 나뉘야 청문회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일부러 시간을 끌지는 않겠지만 졸속 검증도 하지 않겠다"면서 "인사청문대상자들이 그동안 어떤 신념으로 어떤 관철을 내렸는지, 특권층과 재벌을 위한 관철을 내렸는지 아니면 서민을 위한 관철을 내렸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 자동개원 새누리당 추진

새누리당이 20대 국회부터 여야 협상 없이 법에 따라 국회가 자동개원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개원협상을 하면서 '개원은 절대 협상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제도적으로 자동 개원이 되도록 (개원) 시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쇄신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20대 국회부터는 유치한 밥그릇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이한구 "저축銀 사태, 필요하면 국정조사"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3일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에서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 부분은 지난 정권 이후에 누적된 부정부패 비리사건으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관계된 내용은

보편 부실저축은행엔 무차별 횡령사건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번엔 철저히 규명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중헌 전 비대위원과 경제민주화를 놓고 설전을 벌인 데 대해선 "설전이러기 보단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김 전 비대위원의 재벌 대변 지적을 일축했다.

그는 또 "김 전 비대위원은 이 원내대표가 재벌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김 전 위원에게 물어보아야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느냐. 뭘 갖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거기다 물어보라"고 했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불법사찰은 총리실만 한 게 아니라 사실 많은 국가기관이 관련돼 있다"며 "거기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김승남 "쌀 자연재배 시범단지 조성"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3일 농업기술센터·대학 교수·친환경 농가와의 협의를 통해 무농약·무비료·무퇴비 등 자연재배법을 활용한 '쌀 자연재배 시범단지'(2ha)를 고흥군 풍양면에 처음으로 조성, 재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연재배법이 낮은 생산비·장기 저장성·우수 품질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물론 한미 FTA 농업 강대국들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안이 4·11 총선 당시 여·야가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로 위축됐던 국내 축산업을 회생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사료가격안정법안 발의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3일 축산업계가 한미 FTA 대책 일환으로 꾸준히 요구해온 '배합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이윤석,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윤석 국회의원은 3일 예비비 집행 내역의 국회 보고 및 검토를 강화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국회가 이미 지출된 예비비를 사후 승인하는 역할 밖에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 남 영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 (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

경매투자

- ▶ 실전경매 배우실 분
- ▶ 교육 / 활동비등 550만원
- ▶ 특수물건만 취급
- ▶ 배우면서 투자가능

투자자 모집

- ▶ 낙찰받은 경 / 공매 물건
- ▶ 근저당설정 / 가등기로 보장
- ▶ 연10~30% 수익률
- ▶ 기간 : 1년정도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